9/30/18

설교 제목: 하나님은 빛이시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요한일서 1 장 5-10 절

(요일 1:5)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일 1:6)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요일 1:7)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8)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10)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절관주] 요 5:38

신앙 생활이란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에도 사귐을 가져 서로 위로하고 끌어 주면서 손잡고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생활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사귐을 가지려는 상대를 알지 못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둘째,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일 1:5)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셋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일 4: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중에서 본문은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요일 1:5)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빛'은 선, 순전, 참됨, 거룩을 상징합니다.
'어둠'은 죄와 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므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죄나 악으로 더럽혀져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고 참되시므로 그분만이 진과 선과 미의 절대 기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의 기준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을 합리화시켜 '도덕적 다원주의(moral pluralism)'라고 합니다.
다른 신들을 숭배하며 그것을 합리화시켜 '종교의 자유(freedom of religion)'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배척하며 그것을 합리화시켜 '다문화주의(multi- culturalism)'라고 합니다.
낙태를 옹호하며 그것을 '선택(choice)'라고 합니다.
게으름을 보상하며 그것을 '복지(welfare)'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훈계하지 않고 방임하면서 그것을 '자긍심 고취(building self-esteem)'라고 합니다.
신성 모독과 포르노를 계시하면서 그것을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post-modern)이라고 부르는 이 시대는 더 이상 절대적 진리와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옳은 것도 그른 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기준입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했던 사사 시대처럼 각자 생각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 거룩 즉 공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 중 공의보다는 사랑을 부각시키기 원합니다.
부담가지 않고 듣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빼면 죄에 대한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구원의 진리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귀는 우리는 진리를 행하며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어둠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요일 1:6)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귀는 여러분은 진리만 행하며 사십니까?
아니지요.
그럴지라도 너무 낙담하지 말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일 1:7)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안에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진 후 그 죄가 유전되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일 1:8)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가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자이고 기독교 진리에서도 벗어난 자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죄인 된 내가 빛이신 하나님과 진정 교통을 할 수 있을까?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너무 근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빠지게 될 딜레마를 파악하시고 해결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일 1:10)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나와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사귐을 갖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당신 앞에 나온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종국에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열심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 하다'는 뜻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죄를 사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사귐을 가지면서 또 다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한 번 자식이 되었으면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잘못했어도 여전히 자식입니다.
자식이 못 났다고,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호적에서 파내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입니다.
회개하여 죄를 씻고 긍휼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씻겨 눈보다 더 희고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어 다시 당신의 품에 품어 주실 것입니다.
몇 번까지 그렇게 용서해 주시느냐구요?
70 번씩 7 번이라도요.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 머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두움의 권세 아래 있게 됩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잠시 어두움 속에 있었을지라도 회개를 통해서 빛으로 나오면 어두움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묶지 못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마련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예를 봅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킬려고 노력하면서 비교적 깨끗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도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한 점의 죄도 없는 양, 거룩한 양 외식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깨끗해 보였으나 속은 더러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두움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단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죄를 감춘 자들의 결말입니다.
반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고 회개한 세리, 창녀, 강도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낮고 천했을지라도 모두 치유를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고 둘 다 죄를 범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모조리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왕 아각을 살려두고, 기름진 소와 양들을 자신을 위해 죽이지 않고 남겨 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고 어찌된 일인지 묻습니다.
이때가 사울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때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으면 그는 왕위를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명을 늘어 놓았습니다.
사울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사람을 의식해서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참하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을 때 그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임신을 하자 그 일을 은폐하고자 우리아를 일부러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회개가 그를 살렸습니다.
시편 51 편은 이때 다윗이 한 회개입니다.
참으로 처절한 회개입니다.

(시 51:1)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 51:2)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 51:3)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 51:7)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 51:8)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시 51:9)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 51:10)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 51: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 51: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 51:13)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시 51:14)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시 51:15)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시 51:16)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 51:17)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 51:18)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시 51:19) 그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 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꾸 반복하여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가 불편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다시 돌아 오면 악한 사탄 마귀 어두움의 세력들은 물러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나치게 자책감을 갖게 하는 것도 사탄의 공략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을 믿는 것은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죄에서 해방되십시요.
그래야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사귐을 가져 참된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